

총당금만 가득쌓은 韓 은행, NPL비율 세계 최저수준

(부실채권)

우물안 **국내銀** **글로벌** **외국銀**

③ 자산 건전성

STX조선해양 살리기 투입 자금만 8兆
한계기업 '주채권 은행 구조조정' 문제
사업구조 재편으로 은행 리스크 줄여야

연간 수주 실적 세계 3위, 세계 수주 잔량 4위, 재계 서열 13위. 조선업이 호황이던 지난 2008년 STX조선해양이 거둔 성적표다. 10년 뒤인 2018년. 역사 속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던 STX조선해양은 법정관리 문턱에서 겨우 살아 남았다. 이미 법정관리에 들어간 성동조선해양과 STX조선해양은 그야말로 '돈 먹는 하마'였다. 은행 등 채권단이 그동안 STX조선해양을 살리기 위해 투입한 자금만 8조원에 달한다.

대우조선해양·STX조선·금호타이어·한국GM 등 기업 부실이 터질 때마다 은행들은 빚폭탄에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한계기업 문제를 20년째 주채권은행 주도의 재무적 구조조정으로 풀고 있는데 따른 문제다. 구조조정은 망한 기업을 살리는 게 아니다. 성장성이 낮은 사업은 축소·폐지하고 국내외 유망기업과 손잡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등 사업구조를 재편하는 작업이다.

그래야 채권단인 은행의 비용과 리스크가 줄어든다. 또 영업에 써야 할 돈도 총당금이란 명목으로 쌓아둘 필요가 감소한다.

◆부실채권 대비 총당금 탄탄

2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한국은행의 대표은행 합산부실채권(NPL)비율은 0.7%다. 미국과 같은 수준이다.

은행별로는 2017년 기준 KB금융 0.7%, 신한지주 0.5%, 하나금융 0.7%, 우리은행 0.8%이다.

글로벌 은행 평균 1.6%보다 건전한 구조다. 글로벌 주요은행 가운데 BNP파리바(4.8%)와 소시에테제네랄(5.0%), 방코산탄데르(4.35)의 NPL비율이 높았다. 지역별로는 유럽은 4.0%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부실채권에 대한 총당금 적립규모를 의미하는 NPL커버리지비율도 한국은 115%로 부실채권보다 총당금 적립액이 많다.

글로벌 주요은행 중 로이즈뱅크(28%)과 도이체은행(63%)의 NPL커버리지 비율 보다는 높고, 제이피모간체이스(212%) 및 시티은행(259%) 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국가별 주요은행 합산 기준으로는 미국과 중국은 178% 및 155%로 높은 반면 영국과 유럽은 49% 및 63%로 낮은 수준이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부실채권에 대한 총당금 적립규모를 의미하는 NPL커버리지비율도 높다. 이 비율이 높으면 부실채권에 대해 총당금을 많이 적립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부실화가 추가로 진행돼도 은행 부담이 크지 않으며 향후 총당금 환입 가능성도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의 시중은행의 대손비용률도 좋은 편이다. 지난해 말 기준 KB금융의 대손비용률은 0.2%에 불과했다. 하나금융이 0.3%로 뒤를 이었다. 신한지주와 우리은행은 각각 0.4% 였다.

반면 일본 주요은행은 모두 마이너스(환입)였다. 로이즈뱅크, 도이체뱅크, 크레디트스위스 등도 낮은 대손비용률을 기록했다.

글로벌 주요 대표은행 국가별 대손상각비 추이도 일본은 2010년 이후 0% 수준으로 매우 낮은 반면 중국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한국은 2014년부터 하락하기 시작해 일본을 제외하고 가장 낮은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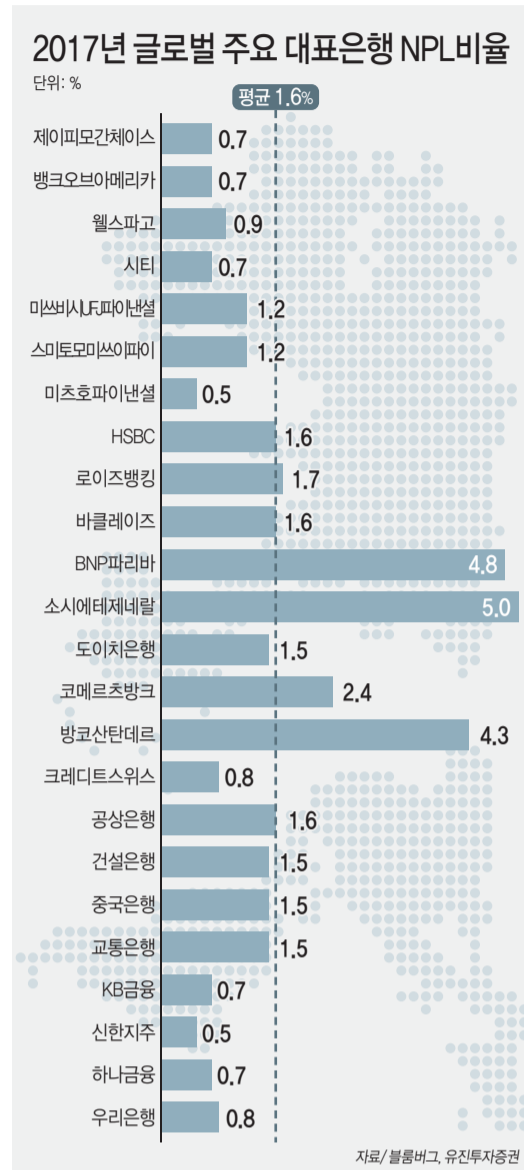
한국이 상대적으로 대손비용률이 낮은 이유는 자산건전성 개선 노력과 2014년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활성화 정책' 시행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중심으로 높은 성장을 실현한 반면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대손상각비 부담이 큰 폭으로 감소한 탓이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 2011년말 0.89% → 2013년말 0.61% → 2015년말 0.27% → 2017년말 0.17%).

◆관비 하락 추세

은행의 효율성 지표 가운데 하나인 관비도 낮아지는 추세다.

2015년과 2016년에 각각 20.9%, 20.6% 증가한 관비는 지난해 1.6% 증가했다. 특히 한국 주요은행 명예퇴직 비용이 2015년부터 반영되기 시작, 2018년 이후부터는 명예퇴직 비용 축소와 명예퇴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별 주요 대표은행 임직원수 증감에는 차이가 나타난다. 대부분 국가에서 감소하고 있다. 특히 미국 2011년, 영국 2010년, 한국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낮은 국내성장에 따른 대안으로 해외진출을 확대하면서 오히려 증가했다.



신한카드 쏘카 결제전용 신용·체크카드 출시

신한카드가 쏘카와 손잡고 '쏘카(SOCAR) 신한카드' 신용·체크 2종을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쏘카 신용카드'는 쏘카 결제금액의 30% 할인이 적용된다. 할인전 승인금액으로 회당 9000원까지 할인(월 최대 할인 한도 2만원)이 가능하다. 월 할인회수는 전달 이용금액에 따라 30만원 이상 60만원 미만은 1회, 60만원 이상 90만원 미만은 2회, 90만원 이상은 3회까지다.

철도 이용 시에도 결제액의 10%를 할인 받을 수 있다. 단, 일 1회 한도는 5000원으로 월 최대 2회까지만 가능하다.

스타벅스·커피빈·이디야·투썸플레이스·엔젤리너스·빽다방 등 커피전문점은 20% 할인 받을 수 있으며, 홈플러스·이마트·롯데마트 등 쇼핑은 3%, GS25·CU·세븐일레븐 등 편의점은 각각 5% 할인 받을 수 있다.

'쏘카 체크카드'는 쏘카 결제금액의 10%를 할인해준다. 이밖에 CGV, 롯데시

네마, 메가박스 등 영화관을 이용할 때는 1만원까지 10% 할인 받을 수 있다. 철도 이용 할인 혜택은 5%다.

신용카드 연회비는 국내 1만3000원, 해외 1만6000원이며, 체크카드 연회비는 없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쏘카 회원과 차량 공유에 관심이 많은 고객에게 보다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양사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시너지 창출도 지속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5@



KEB하나銀 '오토론'

오토바이 구입비까지 지원

KEB하나은행은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인 '1Q 오토론'을 260CC 초과 오토바이 구입자금 용도까지 확대 제공한다고 2일 밝혔다.

'1Q 오토론'은 신중증시 대출가능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차 구입자금 대출이다. 모바일과 인터넷을 통해 공인인증서 및 별도 어플리케이션 설치 없이 24시간 편리하고 신속한 한도 조회와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KEB하나은행은 국내 오토바이 시장에 '가치소비' 지향 트렌드가 확산됨에 따라 손님의 소비성향에 맞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1Q 오토론' 지원 대상을 배기량 260CC 초과 대형 오토바이에도 확대 제공기로 했다.

'1Q 오토론' 대출한도는 최대 1억원까지 차량 및 오토바이 판매가격 이내에서 신청 가능하다.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신청 가능하며 최저 연.3.948%(2018년8월2일 기준)의 금리가 적용된다. 1Q 오토론 오토바이 구입 지원 확대를 기념해 프리미엄 모터사이클 브랜드 '두카티 코리아'와 폴라보 이벤트도 진행된다. /김문호기자

신한銀 '쏠픽'으로 프로야구 구단전력 분석

(모바일 뱅킹)

승리팀 맞추기·퀴즈 등 이벤트 다양
팬들 위한 '베이스볼파크'도 오픈

신한은행은 모바일 뱅킹 쏠(SOL)에서 프로야구 경기 퀴즈 이벤트와 구단별 전력분석 데이터를 제공하는 '쏠픽(SOL Pick)'을 오픈했다고 2일 밝혔다.

KBO리그 메인스폰서 신한은행은 쏠에 프로야구 퀴즈·경품 제공 콘텐츠와 구단별 전력분석 데이터까지 탑재함으로써 KBO리그 예·적금, 경기 중 즉석 추첨 이벤트 '쏠타임(SOL TIME)', 매일 진행되는 '월간 MVP투표'에 이어 프로야구 관련 콘텐츠 라인업을 확대했다. 이 콘텐츠들은 모두 쏠(SOL) 내 프로야구 전용 페이지에서 이용할 수 있다.

이번에 오픈한 '쏠픽(SOL Pick)'의 프로야구 퀴즈 콘텐츠는 경기가 진행되는 날 승리팀을 선택하는 '승리팀 맞추기'와 해당 일자 경기 내용 관련 퀴즈의 정답에 해당하는 1개 구단을 선택하는 '1:10 퀴즈'로 구성되어 있다. 참여 고객들은 승리팀을 맞출 때마다 점수를 획득할 수 있



며 5개 승리팀을 모두 맞추고 '1:10 퀴즈'까지 맞출 경우 가산점도 받을 수 있다.

퀴즈로 만점을 획득한 고객(최대 50명)에게 백화점 상품권 3만원을 매일 제공하며 매주 누적 점수를 합산해 1위 고객에게 기프트카드 50만원, 2~10위 고객에게 백화점 상품권 5만원, 11~100위 고객에게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교환권을 제공한다. 또 16일까지 '쏠픽(SOL Pick)'에 10일 이상 참여한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기프트카드 50만원, 백화점 상품권 5만원, 베스킨라빈스31 포인트

교환권 등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동시에 진행한다.

신한은행은 프로야구 팬들을 위한 종합 정보제공 모바일 웹 '신한 베이스볼파크(BASEBALL PARK)'도 함께 오픈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프로야구 팬들을 위해 신한은행의 개성을 반영한 야구 플랫폼을 개발했다"며 "KBO리그 메인스폰서로서 금융권의 한계를 넘는 다양한 야구 콘텐츠를 계속 개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유재희 기자 ryusoul91@

NH농협銀 "가뭄·폭염 속 풍년을 기원합니다"

NH농협은행이 최근 가뭄과 폭염으로 지친 농업인과 국민들을 응원하는 '가뭄·폭염 극복 응원 SNS 이벤트'를 이달 말까지 농협은행 공식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통해 진행한다. 2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지난 2월부터 실시한 '농가소득 5천만원 달성 국민 공감 캠페인'은 우박이나

인'의 일환으로 가뭄과 폭염을 극복하고 풍년 농사를 기원하는 메시지를 댓글로 작성하는 방식이다. 댓글 작성자 중 500명을 추첨하여 농협몰을 통해 홍로사과 5kg을 경품으로 제공한다.

농협은행이 펼치고 있는 '농가소득 5천만원 달성 국민 공감 캠페인'은 우박이나

가뭄 등 자연 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가를 돕고 농가소득 5000만원 달성과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기획했다.

이대훈 은행장은 "농업인과 농촌을 응원하고자 이번 이벤트를 기획하였다"며 "은 국민의 공감과 응원에 힘입어 농업인이 가뭄이라는 악조건을 극복하고 올해 풍년 농사를 짓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